논 문
CODE 30101

**통로공간의 구성체계에 따른 주거 내부공간의 상호결합특성에 관한 연구

- 한국과 독일의 주택 평면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patial Interdependence in the Interior Space of Housing According to the Planning of Circulation System

- Based on the Korean and German Cases -

전남일* / Jun, Nam-Il

Abstract

The planning of circulation area and circulation path are very important elements for layout of interior space of housing. This study is, therefore, aimed at synthetical review of that area from a functional, structural and socio-cultural point of view as well as typological analysis of that area. In the interior space of housing the networking of spaces according to the circulation route imply divers aspects of independent or dependant significances. It is thus, closely related with to whether circulation area open or closed, whether circulation path concentrated or distributed, and whether it passes individual rooms or not. With regard to relationship with public and private spaces, there are many grounds for combining each other. This study also tried to develope program for planning of circulation system, utilizing typological analysis of them. At the same time this study suggests examples for layout of housing spaces.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represented in the form of systematic diagram will deserve to be a tool for providing an appropriate solution to the problem of diversity of user's needs.

키워드 : 통로공간, 기능적, 의장적, 사회문화적 결합특성, 주거 내부공간 계획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주거 내부공간은 그 기능과 사용자에 따라 가족공동생활공간, 개인공간, 위생공간, 가사작업공간, 그리고 부수적 공간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이 중 특별한 용도와 무관하나, 주거공간 계획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공간은 부수적 공간으로 분류하는 통로공간이다. 이 통로공간의 구성은 각 실의 연계 및 분리, 합리적 동선분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주거공간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다른 공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통로공간은 경우에 따라 다른 공간과 통합적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그 경계가 정의하기 어렵도록 모호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로공간의 구성으로서 각 공간의 연결관계가 결정지워지고, 주거공간 계획에 있어서 다양한 계획의 여지가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이러한 통로공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통로공간의 다양한 구성체계를 탐구하고, 이 공간의 계획에 따라 달라지는 주거내부의 전반적인 공간적 상호결합특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주거공간의 계획은 각 공간이 함께 연계되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에 대한 각론적 고찰은 이제까지 주로 각 공간에 대한 개별적 접근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공간계획 연구의 개별적 접근에서 탈피하여 총체적인 분석을 하는 하나의 연구범주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각론적 연구조차도 미미한 통로공간에 대하여는 각론적 탐색과 함께 더욱 심층적인 고찰을 수행함으로써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는 통로공간 계획의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주거계획에 있어서는 물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문화적 요인이

* 정회원, 가톨릭대학교 생화과학부 소비자주거학전공 조교수
** 본 연구는 2003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함께 작용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사회적 요소, 기능적 요소, 실내의장적 요소 등이 상호작용하여 생성하는 공간의 특징이 공간간의 상호 결합, 또는 분리의 특성이라는 입장에서 출발하였다. 즉 공간결합이라는 특성이 물리적, 문화적 요인의 접점이 되는 주요 관찰대상이라는 기본적 인식을 갖고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나날이 다변화하는 주거공간의 계획을 더욱 다양하고 심도 있게 수행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계획의 지표를 제시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삼는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주거공간 내 통로공간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위주로 고찰하였다. 이는 크게 세 측면에서 통로공간의 구성을 살펴보고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첫째, 기능적 관점에서 주거 내 통로공간의 의미와 계획적 특성을 고찰하고 다양하게 계획되어질 수 있는 통로공간의 구성을 파악하였다. 이때 통로공간에 따라 달라지는 동선분배, 각 실의 연계, 기능적 충족, 벽체의 구성 등을 살펴보았다. 둘째, 실내의장적 관점에서 통로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미닫이문과 여닫이문의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 통로공간의 성격, 이로 인해 좌우되는 가구배치 계획 등을 고찰하였다. 셋째, 사회문화적 관점에서는 주거 내 공동생활공간과 개인공간과의 관계설정에 영향을 주는 통로공간의 구성을 고찰하였다. 여기서는 각 실의 결합과 분리, 통로공간의 시각적 차단역할 등을 살펴보았다. 각 사례는 공동주택의 평면을 중심으로 지역별로는 한국과 독일의 사례, 시기별로는 20세기 이후 초반(1900 - 1930년대), 중반(1950 -1960년대), 후반(1980 - 1990년대)의 사례에서 상이하게 나타나는 다양한 통로공간의 유형을 문헌에서 발췌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각 관심주제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통로공간의 계획을 각론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는 통로공간이 구성되는 유형을 정리한 기존의 연구[1]를 보완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분류하여 유형화한 것이다. 이로써 통로공간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 공간간의 사회적 결합특성, 기능적 결합특성, 물리적 결합특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 기초자료 탐구, 문헌을 통한 사례수집 및 그 분석, 도식화작업, 통로공간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계획사례 제시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사례는 통로공간의 유형과 의미를 비교, 설명할 수 있는 평면으로 선별하였는데, 규모는 거실, 식사공간 등의 공동생활공간과 부엌 및 위생공간, 그리고 개실이 두 개내지 세 개로 이루어진 평면으로 하였다.

2. 통로공간의 정의와 이론적 배경

1970년대 독일의 기능주의적 주거이론가인 Deilmann(1973)은 주거단위평면을 유형적으로 분류하면서 통로공간에 의해 달라지는 주거 내부공간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그 장단점을 평가하였다.[2]

1) 통로공간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실이 고정된 크기로 정해져 있어 융통성이 없고 통로공간이 면적을 크게 차지하는 평면

2) 통로공간이 다른 공간과 통합된 구성으로 면적은 절약되나, 상호 방해와 강제적 교류를 유도하는 평면

3) 공동생활공간과 사적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며, 사적공간은 통로공간을 통해서만(공동생활공간이 아닌) 출입하게 되는 평면

4) 공동생활공간의 일부를 통하여 사적공간으로 출입하게 되는 평면으로 면적에 따라 통로공간의 개방과 폐쇄를 조절할 수 있는 평면

5) 사적공간이 평면의 두 부분에 나뉘어 배치된 평면

6)[3] 기타: 공간에 다양한 융통성이 부여된 평면

여기서 중요한 점은 통로공간과 각 실의 출입관계가 어떠한 일정 기준에 의해 분류될 수 있으며, 각각의 구성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리라는 점을 그의 연구가 시사했다는 점이다.

주거사적으로 보았을 때 통로공간은 각 실이 기능에 따라 분화되고, 주거면적이 증가하면서 생긴 공간임이 이미 정설이 되어 왔다. Barbey(1984)[4]에 의하면 산업혁명 시기를 전후로 하여 통로공간을 통하여 진입하게 되는 분리된 거실공간은 "사회적 진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는 이 공간이 공간과 공간 사이를 중개해주고, 걸러주며, 이동경로의 속도를 느리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전 시기까지 어떠한 한 실로 진입하기 위하여 3-4개의 실을 통과하여야만 했던 것은 예사였던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영국인건축가 H. Robert는 평면 중앙에 복도가 배치되어 각 실이 독립적으로 배치된 획기적인 주거모델을 선보였다. 특히 시민계급을 위한 모델에서는 이러한 평면개념이 주거 내 주인, 고용인 사이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

1)전남일, 주거 내부공간의 개방성과 폐쇄성의 체계 - 거주자의 다양한 사회적 속성에 대응하는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5권 12호, 통권 134호, 1999.12.

2)H. Deilmann, Wohnungsbau, 1973, pp.31-37

3)여기서 그는 융통형 평면의 다양한 유형에 대하여도 소개하였으나 연구주제의 범위에 벗어나므로 상세한 더 이상의 분류는 생략하기로 하였다.

4)G. Barbey, Wohnhaft- Essay über die innere Geschichte der Massenwohnung, 1984, pp.71-79

시키는 방법으로 후일에까지 널리 사용되었다.

최근에는 주거 내부공간의 사회적 기능과 그 진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온 Häusserman(1996)의 고찰이 주목을 받아왔다. 그는 Arch+라는 잡지와의 인터뷰[5]에서 통로공간을 "사회적으로 발생된 공간"이라 정의하였다. 통로공간은 주거 내에서 각 실로의 출입을 모아주는 곳으로서, 사회가 개별화로 진행되면서 생긴 공간이며, 그 기원은 17세기로 올라간다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이는 도시화와 문명화 물결의 산물로서, 누구에게도 보여 지거나 통제되어지지 않는 익명성을 주거 내부에서도 지향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때 통로공간은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사이의 완충공간을 형성하게 되며, 주거공간의 내, 외부간에 거리를 두게 되는 심리적, 환경적 기능을 수행한다. 시민사회 이전에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았던 사회에서는 공간들이 서로가 서로를 지나가게 되어 있었고, 각종 행위들은 시각적으로 제3자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시민사회가 발달하고, 개인의 인격이 보장되면서 공간 사이에 "장막을 치는 구조"[6]로 변화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나아가 통로공간의 구성으로 타인으로부터의 분리, 원치 않는 접촉에 대한 통제, 근접, 교류, 공동체성 등을 강제적이 아닌 방법으로, 경우에 따라 융통적으로 조절해 줄 수 있으리라는 점을 시사하였다.

통로공간에 대하여 각론적, 계획적으로 접근한 Faller(2002)는 주거공간을 취침 및 위생공간, 취사 및 식사공간, 진입공간으로 나누면서 통로공간을 진입공간으로 분류하였는데, 그 기능을 원치 않는 방해로부터 사적공간을 보호해 주는 것이라 하였다.[7] 각 실에서 화장실로, 현관에서 부엌으로의 원활한 동선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기능적인 시각에서 통로공간을 파악하였고, 주거수준이 높아질수록 다양하게 요구되는 통로공간계획의 필요조건, 즉 거주성이 강조되는 통로공간의 유형을 제시하였다.[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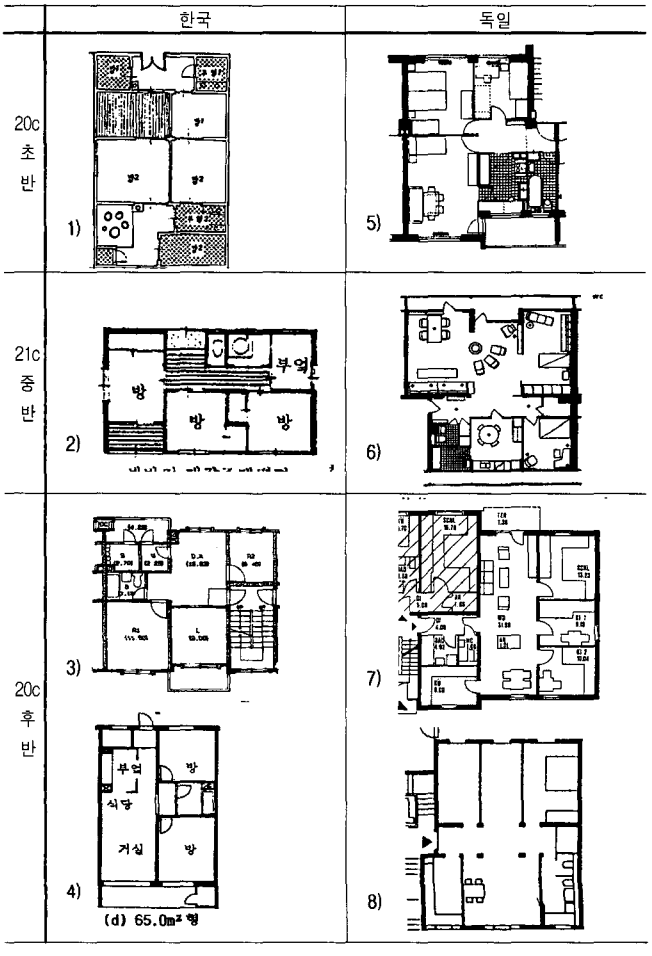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로공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Deilmann이 시사한내용을 근간으로 평면을 통로공간 위주로 분석한 것으로서, 그의 분류보다 더욱 상세히 체계화하고 유형화하고자 한 것이다. 한편 이후의 연구들이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였듯이 통로공간의 구성은 유형적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역시 이러한 다각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관찰하여 통로공간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하고자하였다.

3. 통로공간의 계획사례 분석

3.1. 기능적 측면

통로공간은 엄밀히 말하면 외부공간으로부터 내부공간에 이르는 전이공간인 엔트런스 공간과 주거공간 내부에서 각 실로의 진출입 역할을 수행하는 동선분배공간으로 나뉘어 그 기능을 수행한다. 후자의 경우 통행의 역할만 하는 공간으로 분리될 수도 있고, 다른 공간과 통합적으로 구성되기도 한다. 통합적으로 구성된 경우는 한국의 사례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그림1>의 사례1)에서는 통로공간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공간을 평면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여타 공간과 통로공간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 80년대, 90년대의 평면에서도 이러한 통합적인 통로공간의 구성은 빈번하게 나타난다. 사례3), 사례4)의 경우 취침영역의 작은 복도 -현관공간과는 분리된-는 가족공동생활영역과 취침영역을 강하게 분리해 준다.

<표 1> 통로공간의 기능적 측면 비교



5)H. Häusserman & N. Kuhnert, Wohnen zur Disposition, Arch+ 134/135, 1996

6)R. Evans, Menschen, Türen, Korridoren, 전게서, p.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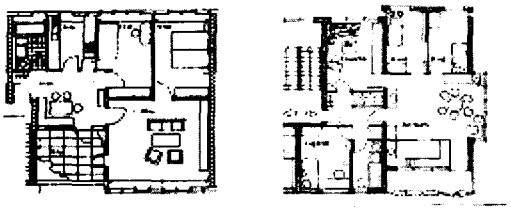
7)P. Faller, Der Wohngrundriss, Deutsche Verlagsanstalt, 1996, p.28

8)그는 여기서 현재 서구의 기준에서 요구되는 통로공간의 필요조건을 제시하였는데,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는 Warderobe가, 그리고 수준이 높을 경우에는 손님용 화장실, 수납공간, 세면대 등이 설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는 통로공간이 분화되고, 나아가 거주성이 향상되는 경향을 나타내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소득이 높고 공간크기가 클 경우에만 요구되는 조건들이 서구에서는 보편적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보아 서구에서는 통로공간에 대한 인식과 공간적 요구가 더욱 높음을 알 수 있다.

분리된 경우는 대부분 두 면 이상으로 구성된 어둡고 답답한 복도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때 각 개실, 그리고 공동생활공간 역시 통로공간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며, 각 실마다 (공동생활공간 역시) 다른 실로 통하는 하나의 출입문만을 갖게 된다. 각 실간의 연계는 통로공간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고 직접적인 공간과 공간과의 연결- 예를 들면 거실에서 각 개실로의 직접적인 연결-은 되지 않는다. <표 1>의 사례5)가 대표적인 것으로서 독일의 20-30년대의 기능주의 집합주택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구성은 한국전통주택이 근대화된 주택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도 속복도형 평면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한국의 경우 매우 예외적으로 통로공간이 분리된 사례이다.(사례2)

통로공간이 다른 공간과 통합적으로 구성되었을 경우에도 동선은 일정 부분에 모여질 수 있고(사례6) 분산될 수도 있으며(사례7), 필요에 따라 다시 통로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사례8)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사례6,7). 독일의 경우 통로공간은 여타공간과 분리되어 단일기능만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례 6) 7) 8)의 경우는 50년대 이후 가족중심적인 평면형이 보급되면서 새로운 개념으로 제시된 것들이다. 이는 이후 언급할 사회문화적 측면과도 많은 관계가 있다.

통로공간이 분리되거나, 필요에 따라 분리될 수 있도록 구성된 경우는 통로공간만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필요로 하므로 적은 주거면적 내에서는 공간이용적인 면에서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규모의 주택[9]에서는 주로 통로공간을 다른 공간과 통합하여 구성하여 공간의 이용도를 높이거나, 개방적으로 구성하여 공간의 넓은 느낌을 유도하게 된다. 통로공간은 식사공간, 거실, 또는 거실 겸 식사공간과 통합하여 구성하기도 한다.<그림 1-a> 이밖에도 통로공간은 어린이 활동 및 놀이공간, 가족실, 취미실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용도와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그 의미를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그림 1-b>



1-a 1-b

<그림 1>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통로공간 -독일80, 9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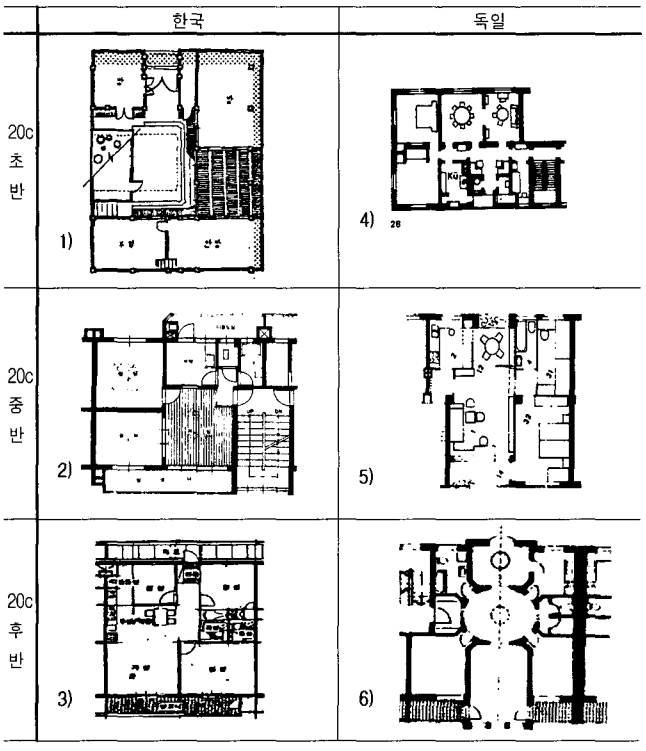
공동생활공간, 그 중에서도 특히 거실에 각 실로의 동선이 분산되어 배치될 경우에는 거실의 벽체에 각 실로의 문이 배치되기 때문에 거실의 독립성이 떨어지며, 통로공간의 역할을 겸하기 때문에 산만한 공간이 되기 쉽다. 그러므로 이런 면에서 볼 때 통로공간이 복도의 형식으로 구성되는 것은 벽체의 면을 늘려주어 공간의 안정감을 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3.2. 실내의장적 측면

통로공간의 구성은 각 실의 가구배치와 연관이 깊다. 통로공간을 별도로 구성함으로써 특히 공동생활공간에서 벽체 면을 늘리는 것은 가구배치를 수월하게 해 준다. 이는 한국에서 가구를 사용하지 않았던 좌식생활 시기의 평면과 이후 거실에서의 소파세트의 사용과 식탁의 사용이 보편화된 시기의 평면에서 통로공간의 구성과 벽체의 구성이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자명해진다.(<표 2>의 사례2) 3))

통로공간을 이루는 주요 요소는 각 실로 통과하게 되는 문, 그리고 문과 함께 구성되는 벽체이다. 이 때 문이 여닫이, 또는 미세기로 구성되는 것의 차이는 매우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다. 우선 외짝여닫이문은 출입동선의 집중과 그 구성이 변하지 않는 고정성을 보인다. 반면 미세기문, 특히 한국 전통주택에서 나타나는 네 짝 미세기문과 네 짝 여닫이 분합문은 출입동선이 보다 넓은 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그 출입동선의 위치도 경우에 따라 이동 가능한 융통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외짝여닫이문과 대조적이다. 이는 접한 두 공간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문의 형식에 따라 그 연관성의 정도가 달라짐을 의미한다.

<표 2> 통로공간의 공간구성요소적 측면 비교



9)독일의 경우에는 한국과 달리 소규모의 주거에서도 복도공간을 따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문화적인 차이가 크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다.(3.3 참조) <그림 1>의 경우는 <표 1>의 사례6,7,8의 경우와 같이 가족중심형 평면형으로 제시된 사례이다.

또한 미세기문으로 된 벽은 일반 벽체보다 경량이고 기밀성이 떨어지며, 투과성이 강하므로 전이공간을 이루는 통로공간의 구성요소로 사용될 때 인접공간과의 시각적, 청각적, 심리적인 분리 및 차단의 느낌이 약해지게 된다.(사례1).

가구사용이 일반적인 독일의 경우 복도를 이루는 벽체는 가구 배치에 적극 이용되어 수납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한다(사례4). 특히 거실공간의 소파세트, 거실장, 식사공간의 식탁 및 장식장 배치를 고려하여 벽체를 형성하고, 통과통선으로 인하여 그 벽체면이 감소하는 것을 지양하는 평면구성기법은 결국 통과동선을 한 면에 집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사례2). 이러한 구성기법은 (사례3)과 같이 한국에서 가구사용이 보급된 이후의 평면구성기법과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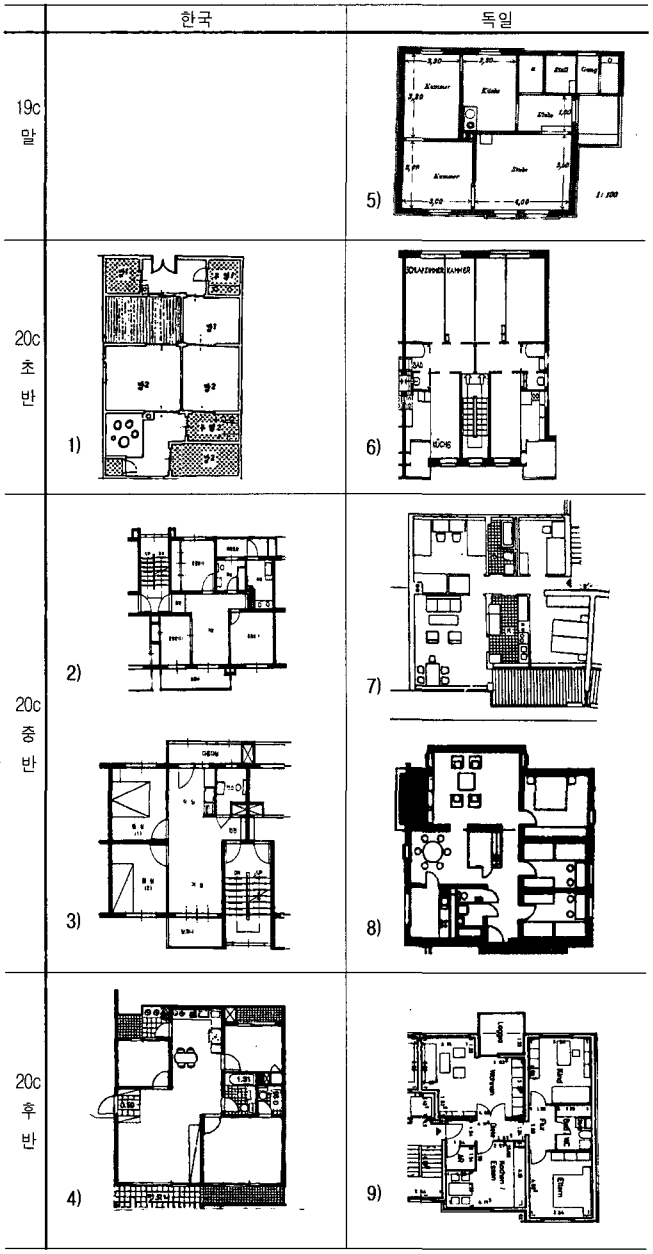
한편 통로공간의 형태는 개실과는 달리 그 형태가 일정하게 규정되지 않고, 그 개방과 폐쇄의 상태에 따라 유동적이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에서 종종 나타나듯이 통로공간이 분리되어있을 경우에는 형태적으로 다양하게 구성하고자 하는 시도들도 나타난다. 이는 종래의 어둡고 지루한 복도공간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통로공간에 보다 많은 면적을 할애함으로서 공간감을 살리고 밝은 공간으로 만들고자 함이다. 통로공간은 기하학적 형태를 갖고 주위에 각 실로의 문이 집중적으로 배치되면서 그 이용도 또한 높아지게 된다<그림 8>.[10] 이러한 통로공간은 각 실로 진입하는 전이공간으로서 전실 및 홀의 개념을 갖는다.

3.3. 사회문화적 측면

Evans(1996)[11]에 따르면 "서로 결합된 공간들의 3차원적 매트릭스(각 공간이 2개 이상 문을 갖는)"를 만드는 평면구성방식은 인간간의 가까움과 접촉을 유도한다. 이러한 평면은 복도가 없이 각 개실들이 연이어 연결되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주택의 공간구성은 르네상스 시기까지 일반적이었으나 기능주의적 평면은 하나의 공간에 하나의 문만 갖도록 구성됨으로써 "2차원적 통로의 다이어그램" 만을 구성한다. 이는 "개인화"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서 거주자 상호간의 방해를 원치 않는 상황에서 벽을 세우고, 하나의 문을 통해서만 원할 경우 하나씩 들어가고 나오도록 만들어진 구조인 것이다. 복도의 등장은 방으로부터 통과동선을 제거시킨 것이다. 다시 말해 복도는 방이 가진 고유의 기능이 다른 용도에 의해 방해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며, 기능과 프라이버시의 확보라는 목적이 있었다.[12]

통과동선이 따로 규정되지 않고 개실과 개실이 묶이게 되는

<표 3> 통로공간의 사회문화적 측면 비교



-통과동선의 개방, 폐쇄를 막론하고- 평면구성은 산업혁명 초기 시기의 독일 노동자 주택에서도(<표 1>의 사례5), 한국 전통주택의 겹집형 평면, 또는 일제강점기의 노동자주택인 조선영단주택에서도 나타나는데(사례1), 이는 모두 거주자 상호간의 접촉과 교류를 강제적으로 유도하는 순환동선을 구성한다.

통과동선의 개방, 특히 공동생활공간으로의 개방 역시 접촉과 교류를 유도한다. 통로공간의 유형을 개방과 폐쇄의 관점에서 분석한 기존연구(전남일, 1999)는 미시사회 내에서 통로공간이 내부연계체계를 형성하면서 그 개방과 폐쇄의 정도에 따라 "공적지향적" 또는 "사적지향적",인 공간구성을 보인다고 하였다.[13] 이러한 동선 및 통로공간의 구성은 문화권별로 차이를

10)사례는 Hillmer & Sattler의 평면으로, 이러한 공간구성원리의 기원은 Paladio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러한 개념은 R. Krier의 주택평면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11)R. Evans, Menschen, Türen, Korridoren, 전게서, p.90

12)최윤경, 주택평면에 나타난 여성의 사회공간적 지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권1호, 2003, p.81에서 인용

13)전남일, 주거 내부공간의 개방성과 폐쇄성의 체계,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5권 12호, 1999, p.85

보이는데, 특히 20세기 이후의 사례들이 그러하다. 사례1)과 사례6)은 동시대적으로 비교하면 독일의 경우 분리된 통로, 폐쇄적 공간구성, 통로기능의 집약화 등을 특성을 보인다. 독일의 경우 상호결합적이었던 19세기 말의 노동자집합주택의 특성이 20세기 초에 사라진 것과 한국의 경우 그 결합적 구성원리가 이후까지 지속된 것은 매우 대조적인 측면이다.

사례2와 사례7은 한국과 독일에 있어서의 대조적 통로공간구성방식을 보여준다. 이는 결국 주거 내부공간에서 거주자의 사회적 요구가 일상생활 위주의 집합적, 공동체적 구조(사례2)로 전개되느냐, 또는 개인적, 사적생활을 강조하고 외부에 대한 체면과 형식을 중요시하는 구조로 전개되느냐(사례7)에 대한 코드를 제공한다. 사례3과 사례8 역시 한국과 독일에 있어서의 대조적 통로공간구성방식을 보여준다. 통로공간의 개방과 폐쇄의 여부뿐만 아니라 통로공간이 공동생활공간 -거실 및 식사공간-을 관통하는 경로를 구성하는 경우(사례4)는 더욱 교류지향적이며, 관통하지 않는 경우(사례8)는 그 반대가 되는 경우이다. 한편 공동생활영역과 분리하여 사적영역에 별도로 통로공간을 구성하는 것은 하나의 주거 내에서도 동선을 두 종류로 나누게 되며, 낮과 밤의 생활영역을 강하게 분리해 준다(<표 1>의 사례4).

통로공간의 구성에 크게 좌우되는 주거 내부공간의 공적지향성향과 사적지향 성향은 공간의 개방과 폐쇄의 정도로 주로 나타나는데, 한국의 주택 계획에 있어서는 개방적 공간구성원리가 크게 작용함을 기존연구에서 밝히고 있다.[14] 반면, 독일의 경우는 20세기 초부터 폐쇄형 복도를 중심으로 각 실을 독립적으로 배치하는 공간구성방식이 70년대까지 지속되었다.[15] 80년대 이후 <그림 1>과 <표 1>의 사례7, 8과 같은 일부 가족생활중심적인 평면형이 선보였던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한국보다 폐쇄적인 성향을 보인다. <표 3>의 사례9는 90년대 이후의 평면으로 30년대의 사례6의 평면구성방식이 재현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사적관계와 개별화를 중시하는 서구의 생활양식과 아직 가족간의 공동체적 습속이 남아있는 한국의 생활양식에서의 차이에서 오는 대조적 공간구성 원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좌식생활과 입식생활의 혼재로 가구사용이 덜 보편화되어 벽체가 많이 필요 없는 한국의 경우와 가구사용이 보편화된 서구의 경우의 차이도 통로공간을 구성하는 방식과 많은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14)박인석 외, 한국 공동주택 단위평면 계획 원리로서이 개방적 공간구성, 15권 12호 1999

15)전남일, 주거사회학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단위주호의 공간구성 변화,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권8호, 2002 참조. 독일의 경우 이러한 공간구성 원리는 80년대 이후에는 가족구성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여러 미시사회적 요인이 작용하여 와해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공간구성보다는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성향을 보인다.

4. 통로공간의 구성체계와 공간의 결합특성

4.1. 통로공간의 유형

이상과 같은 통로공간의 여러 구성사례를 보다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 <표 4>이다. 이는 앞서 Deilmann의 통로공간의 유형에 대한 분류, 그리고 개방과 폐쇄의 측면에서 고찰한 기존연구(전남일, 1999)에서의 유형분류를 보완한 것으로써, 기능적, 의장적,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공간구성을 각론적 기준에 의해 분류하고 Matrix로 구성한 것이다. 도식에서는 공동생활공간(L, D, K)을 통합적으로 간주하여 개실(R)과 구분하였으며, 개실은 2개인 경우로 한정하여 유형화하였다. 이 때 각 실로의 출입문은 외짝여닫이문으로 한정하였다. 미세기문일 경우도 같은 원리로 유형구분이 되지만, 실과 실 사이가 더욱 상호침투적이고 융통적이다. Matrix를 구성하는 그 분류의 기준은 가로축과 세로축에서 다음과 같다.

(1) 가로축의 분류기준

1) 상위구분(개실과의 관계(: 통과동선이 개실을 지나가는가의 여부이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개실이 하나의 출입문을 갖는지, 둘 이상의 출입문을 갖게 되어 "통과방"이 되는지에 대한 차이이다.[16]

2) 하위구분(공동생활공간 및 개실과의 관계): 현관으로부터 개실, 또는 현관으로부터 공동생활공간까지의 통과동선이 거실 및 식사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공동생활공간을 관통하여 지나가는가, 개실영역을 관통하여 지나가는가, 또는 관통하지 않는가의 여부이다. 개실간의 동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존재하는 경우에 각각 분류되어 <표 4>의 세로열을 형성한다.[17]

(2) 세로축의 분류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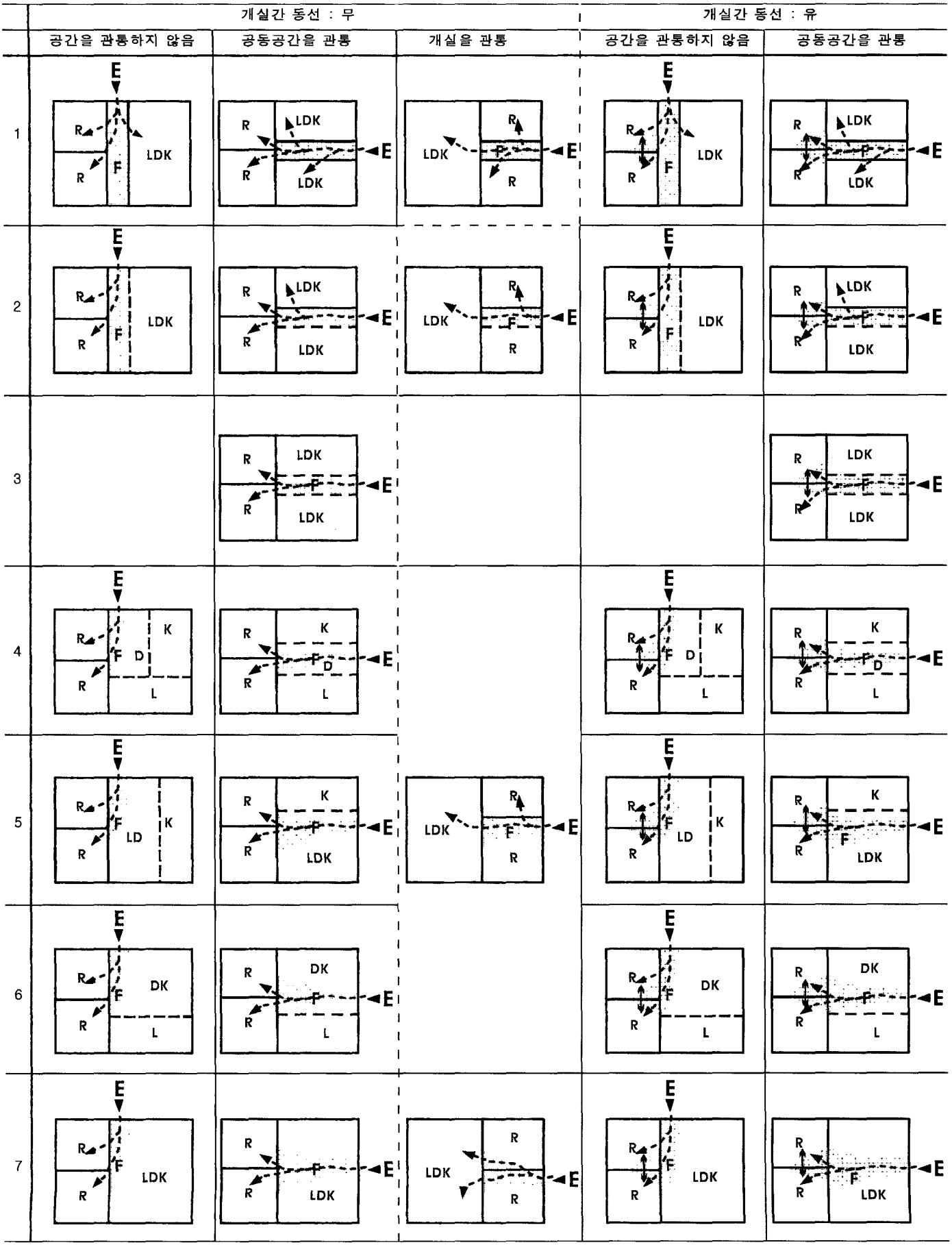
1) 상위구분 (통과동선의 집중과 분산): 통과동선이 영역적으로 집중되어 있어 통로로서 강하게 규정되는가(그룹1, 2, 3이 이에 속한다.), 또는 분산되어 있어 통로로 규정할 수 없는가(그룹4 - 그룹7이 이에 속한다)의 여부이다.

2) 하위구분 (통과동선의 구분 가능성 및 다른 공간과의 통합의 및 통합 가능성): 통과동선이 집중되어 영역으로 인식될 경우에도 벽체로 통로공간의 구획이 이루어져 하나의 실을 이루는 경우가 있고, 어떤 하나의 공간에 개방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개방되어 있는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하나의 통로공간으로 구획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공동생활공간 중 거실, 식사공간, 부엌과는 다양한 방식으로 통합적으로 구성

16)<표 4>에서는 점선으로 표시된 경계를 중심으로 나누어지게 되며, 개실간의 동선이 존재하는 경우는 표에서 어두운 칸으로 구분되어 있다.

17)통로공간이 개실을 관통하는 경우 중 그룹1에서는 공동생활공간에서 L, D, K의 상호구성 방식에 따라 통로공간의 반개방, 거실과 분리, 부엌과 분리, 식사공간과의 분리 등이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개실을 관통하는 유형 중 그룹1의 경우는 공동생활공간에서의 여러 유형을 포괄한다. (<표 4>참조)

<표 4> 통로공간의 유형 및 개실, 공동생활공간과의 관계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가로축의 분류기준에 다른 그룹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그룹1: 통로공간이 완전히 하나의 실을 구성하며 분리되어있음

그룹2: 통로공간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으며 벽체 한 면으로 분리가 가능함

그룹3: 통로공간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으며 벽체 두 면으로 분리가 가능함

그룹4: 통로공간이 영역으로 구분되어있지 않으며 분리할 수 없음, 그러나 거실과 부엌을 통로공간으로부터 분리 가능함(통로공간은 식사공간과 통합적으로 구성)

그룹5: 통로공간이 영역으로 구분되어있지 않으며 분리할 수 없음, 그러나 부엌을 통로공간으로부터 분리 가능함(통로공간은 거실 및 식사공간-리빙 다이닝-과 통합적으로 구성)

그룹6: 통로공간이 영역으로 구분되어있지 않으며 분리할 수 없음, 그러나 거실을 통로공간으로부터 분리 가능함(통로공간은 식사공간 및 부엌-다이닝 키친-과 통합적으로 구성)

그룹7: 통로공간이 영역으로 구분되어있지 않으며 분리할 수 없음, 거실, 식사공간, 그리고 부엌 중 어느 공간도 통로공간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음(통로공간은 거실, 식사공간 및 부엌 - 리빙 다이닝 키친-과 통합적으로 구성)

4.2. 공간의 결합특성과 통로공간구성의 유형별 계획사례

이상과 같이 통로공간의 유형을 <표 4>과 같이 도식으로 정리하여 비교해 보았을 때 각 유형의 특성은 명백히 드러난다. 표의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표의 오른쪽으로 갈수록 공간간의 결합성은 약해지고 각 개실간의 관계는 상호 침투적으로, 통합적으로 진행한다. 또한 그럼으로써 전체 주거공간은 더욱 개방적이 되며, 벽체는 점차 줄어들어 개실과 공동생활공간간의 벽체로 최소화된다. 통로공간의 구성에 따른 이러한 공간특성을 결합도라 정의하고, 그 특성 고찰해 보면 <표 5>와 같다.

<표 6>은 이상과 같이 도식으로 정리된 통로공간의 유형별로 실제 계획되어질 수 있는 예를 제안한 것이다. 사례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면형을 염두에 두었으므로, 미세기문의 경우와 개실간의 동선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물론 각 사례 외에도 다양한 계획이 가능하다. <표 6>의 제시안에서 좌열은 우열보다, 위쪽의 칸은 아래쪽의 칸보다 공간의 결합도가 약하게 나타나는 것이므로 각 제시안들의 특성은 그룹에 따라 <표 5>를 참조하여 상호비교가능하다. 이는 실제 계획시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5> 결합도에 따른 공간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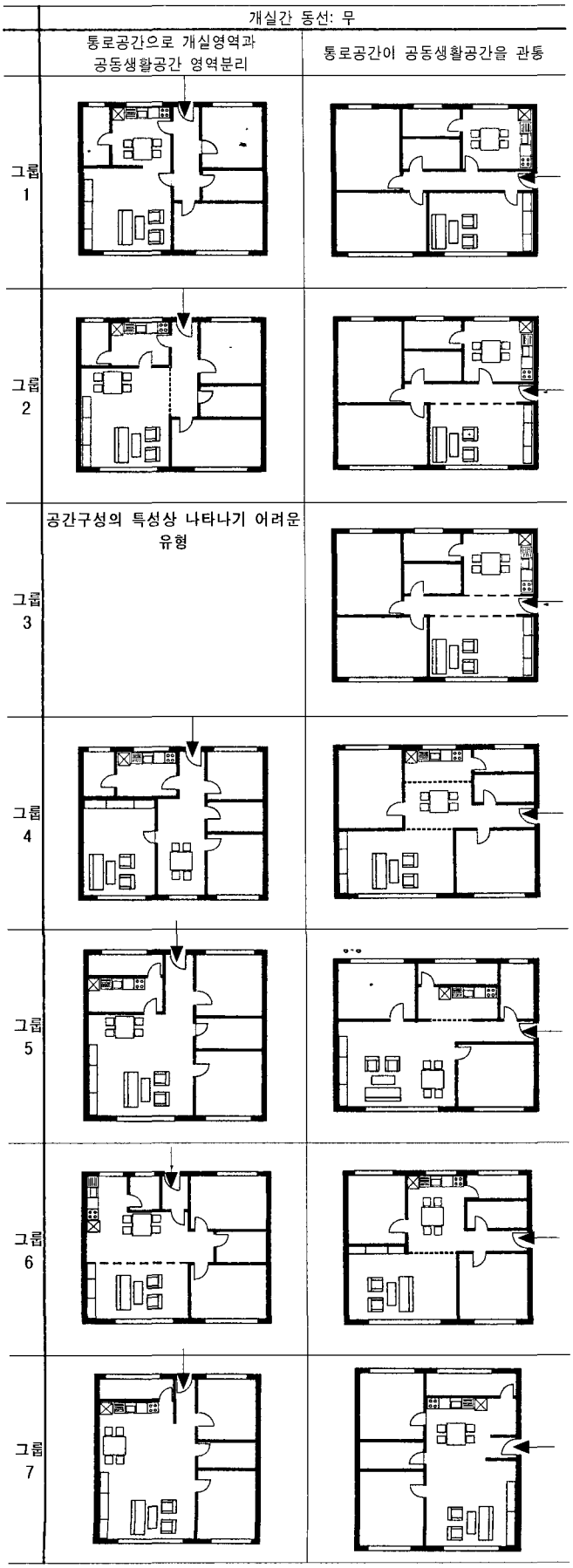
		결합도가 약한 경우	결합도가 강한 경우
동선관계	개실간의 연결	- 통로공간을 매개로 분리 - 개실에 하나의 문이 형성됨	- 직접연결 - 개실에 두 개 이상의 문이 형성됨
	개실과공동생활공간의 연결	- 통로공간을 매개로 분리 - 공동생활공간에 하나의 문이 형성됨	- 직접연결 - 다른 개실을 통해 연결 - 공동생활공간 주변으로 하나의 문이 형성됨
	공동생활롱간간의 연결	- 통로공간을 매개로 분리 - 기능에 따라 공간분화 - 공간 사이에 벽체형성	- 상호 통합적으로 구성
공간의 특성	기능적 특성	- 어두운 복도 형성 - 공간적 협소함 유발 - 필요한 실면적 증가 - 공간구획을 위한 비용이 듬 - 각 공간은 서로 독립적으로 배치되어 기능적으로 분리됨	- 복도는 다른 공간과 통합적으로 구성 - 공간의 개방감 증대 - 필요한 실면적 감소 : 효율적 공간이용 - 공간구획이 단순하여 비용절감 - 공간간 동선이 침투하므로 '통과방'을 형성 - 하나의 실에서 기능의 통합과 중복
	의장적 특성	- 벽체를 많이 형성하므로 가구배치에 용이함 - 가구배치를 위한 면적필요 - 여닫이문을 채택하는 경우에서 많이 나타남 - 가구를 사용하는 서구적 주생활양식에 적합	- 벽체를 적게 형성하므로 가구배치에 어려움이 따름 - 미세기문을 채택하는 경우에서 많이 나타남 - 가구를 사용하지 않는 동양적 주생활양식에 적합
	사회문화적 특성	-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차단 - 사용자간의 독립성과 개별성을 유도 -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선택권 부여, 의도적 접촉	-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상호방해 - 사용자간의 접촉과 교류를 유도 -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강제성, 당위성 부여, 자연적 접촉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주거 내부공간의 구성을 통로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각도로 고찰하고자 하였으며, 거주자에 따라 달리 요구되는 공간간의 상호결합특성을 주거공간계획의 주요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주거 내부공간 계획에 있어서 레퍼런스의 역할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특히 이 중 비교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결과는 지역별, 문화별 거주자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주거공간 계획을 해 주기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통로공간의 계획사례를 기능적, 실내의장적, 사회문화적으로 관찰한 결과를 보면, 통로공간은 집중과 분산의 정도에 따라, 문 및 벽 등 그 구성요소에 따라, 그리고 타 공간으로의 통과여부, 즉 기타 다른 공간과 연계되는 정도에 따라 그 결합의 정도와 의미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결국 통로공간 구성의 유형을 그 결합정도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에 따라 통로공간의 다양한 구성을 도식적으로 정리하였고 그 결합도에 따른 특성을 상세히 고찰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서구에서 이미 오픈

<표 6> 통로공간구성의 유형별 계획의 제안



형 평면, 비분할 평면, 공동주택 내부공간을 입체적으로 구성한 평면 등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상황에 비하여 본 연구는 비교적 단순한 평면형을 기준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획일화된 공동주택의 평면형이 일반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화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일차적 의의를 둔다.

본 연구의 결과는 통로공간이 갖는 계획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이를 주거공간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주거계획에 있어서 다양성의 문제가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는 통로공간계획을 이용하여 주거 내부공간의 계획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줄 것이며, 제안된 계획의 예들은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적용하는데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제시한 통로공간 구성의 다양한 계획가능성을 가변형 평면, 또는 오픈하우징의 개념과 접목하여 구체화한다면 더욱 풍성한 주거공간 계획의 가능성이 열려질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후일의 연구로 계속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1. 베르나르드 루펜 외4인, 김영애, 문은미 역, 건축디자인과 분석, 도서출판국제, 2000
2. 와타나베 다케노부, 임창복 역, 주거공간의 의미, 도서출판국제, 1997
3. 전남일, 주거 내부공간의 개방성과 폐쇄성의 체계 - 거주자의 다양한 사회적 속성에 대응하는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5권 12호, 통권 134호, 1999.12.
4. 최윤경, 주택평면에 나타난 여성의 사회공간적 지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권1호, 2003
5. 히라구치 히데아키, 강병근 역, 20세기의 주택 -공간구성의 비교분석-, 화영사, 2001
6. M. Andritzky & G. Selle, Lernbereich Wohnen, Hamburg, 1978
7. G. Barbey, Wohnhaft- Essay über die innere Geschichte der Massenwohnung, 1984
8. H. Deilmann, Wohnungsbau, Karl Krämer Verlag, 1973
9. R. Evans, Menschen, Türen, Korridore, Arch+, 1996, 9
10. P. Faller, Der Wohngrundriss, Deutsche Verlagsanstalt, 1996
11. R. J. Lawrence, 손세욱 역, 대운출판, 2000
12. N-I. Lee, Der Einfluss des sozialen Wandels auf den Gemeinschaftsbereich im Süd-koreanischen Massenwohnungsbau, Diss. RWTH Aachen, 1999
13. H. Sting, Grundriss Wohnngsbau, Alexander Koch, 1975

<접수 : 2003. 6. 28>